

# 기본소득,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김병수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삶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을 비유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늘 찾아가던 식당이 갑작스레 문을 닫게 되면 또 다른 식당을 찾아 나서야 하며, 늘 즐겨 이용하던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우회로를 결정해서 회사에 도착해야 합니다. 결국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의제는 우연적인 촉발기제(trigger)와 만나 갑자기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는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최근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라는 촉발기제를 만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분쟁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담론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시의성에 착안하였습니다. 대표적 공론의 장(arena)라 할 수 있는 미디어(media)에 12년간 노출된 기본소득 관련 사실 및 칼럼 기사를 분석하여 기본소득을 둘러싼 담론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본소득 관련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제 담론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기는 2015년 이전까지의 시기이며 기본소득 담론의 생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이 대중들의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시기이며,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회자가 되던 시기입니다. 제2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이며 기본소득의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기본소득 담론 형성의 성장기입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고,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 또한 급증하였던 시기입니다. 또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소득의 성격을 표방한 사회수당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시기로 기본소득 담론의 확산기입니다.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긴급히 투입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돌아켜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수혜 대상이 광범위할 경우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많은 이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은 2016년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의 등장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담론 형성기마다 담론의 전체적인 성격은 변화되었습니다. 생성기의 담론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주도된 가운데 탈노동화, 사회권 등 기본소득제의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성장기로 넘어오면서 보수 진영 또한 담론 형성에 참여하면서 논의의 초점이 이론적 논의에서 구체적 현실 대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 확산기에 접어들면서 기본소득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본소득제가 포퓰리즘(populism)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 또한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된 견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찬성 측은 자본주의의 한계로 인해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바라보았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용불안이 가속화될 것이기에 대안적 복지제도로써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과도한 재정부담에 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일부 진행된 기본소득제 실험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누군가는 디자인에 가장 큰 가치를 둘 것이며, 또 다른 이는 실용성이나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꺼이 우리 사회가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며, 다른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모르니 현실적으로 도입은 어렵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이 따져보고 고민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제 또한 도입 여부를 두고 정책 분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기본소득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완전기본소득처럼 모든 기본소득의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기본소득처럼 일부 성격만 충족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도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소득제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분석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담론 형성은 우연한 사건과의 결합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제가 많은 이목을 끌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치러질 주요 선거 결과에 따라 기본소득이 정책의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이러한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